스피또1000 81회차 1등 당첨자 복권.[사진 제공 =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딸이 긁은 복권이 1등에 당첨돼 가족 모두 함께 기뻐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6일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스피또1000 81회차 1등 당첨자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1등 당첨금은 5억원이다.한 달에 한두 번씩 로또 복권과 스피또 복권을 구매한다는 당첨자 A씨는 “어느 날 볼일을 보러 밖에 나갔다가 갖고 있던 스피또1000의 1000원 당첨 복권 2장이 있어 복권 판매점에 들렀다”고 운을 뗐다.A씨는 “로또 복권 5000원과 스피또1000 7장을 구매해 집으로 돌아왔다”며 “평소 아이들이 스피또 복권 긁는 걸 좋아해서 이번에도 아이들에게 긁어보라 했다”고 말했다.그런데 “갑자기 딸아이가 ‘엄마 됐어! 됐어!’라고 외쳐 확인해 보니 1등에 당첨됐다”며 “꿈인지 현실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A씨는 “남편도 처음엔 믿지 못했는데 복권을 보더니 매우 놀랐다”며 “가족 모두 함께 기뻐했다”고 전했다.A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정말 감사하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